

『哲學』概念의 變遷

哲學의 普遍的 定義의 難點(7)

金午星

時空을 超越한 普遍的 定義가 不可能하다면 그 反面에 各時代의 온갖 哲學 體系는 그 時代의 特性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림으로써 普遍的 定義의 代身에 時代的 制約 미테서 어디지는 定義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哲學의 定義를 橫的으로 超歷史的으로 求하지 말고 縱的으로 歷史的 發展의 視角 미테서 求한다면 거의 一般的 特性을 가지고 定義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歷史的인 定義가 오히려 哲學에 對한 具體的 定義가 아닐가.

우리가 視角을 바꾸어서 살펴보면 哲學이란 種概念에 對한 類概念은 各時代에 있어서 그 文化 構造의 特性에 따라 相異하였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希臘時代에 있어서 哲學은 그 위에 類概念도 그 自身 種差 概念도 區分되지 안흔 混頓한 愛智의 精神이었다. 中世紀의 哲學은 그 上位에 宗教를 가지고 있었다. 哲學은 宗教의 婢僕으로서 滿足했다. 그러나 近代에 이르러서는 哲學의 上位 概念은 學問(Wissenschaft)이며 그러면서도 모든 特殊學問과는 種의 概念을 달니하고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은 오직 歷史的으로 相異한 定義를 가질 수 박게 업는 것이다. 그것은 哲學이 모든 體系가 그 時代와 不可離의 制弱 關係에서 成立되는 대서 오는 事實인 것이다.

時空을 超越한 즉 超歷史的인 定義는 不斷히 變遷하며 發展하는 具象의 事實에서는 차저낼 수 업고 오직 抽象的 事象에서만 發見할 수 잇는 것이다. 가장 普遍的 定義가 可能한 것은 數學이다. 數學은 具象的 現實보담도 抽象的 事象의 一般的 屬性임으로 數學의 定義만은 普遍 妥當의이다. 그러나 具體的 現實과 짝해 잇스며 또 人間의 社會的 行動과 結付되어 잇는 哲學은 그 特性을 具體的 現實에서 獲得하는 까닭에 數學과 가튼 普遍的 定義를 가질 수 업고 오직 歷史的으로 相異한 定義를 가질 수 박게 업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이 普遍的 定義를 갖지 못한다고 그 價値가 數學에 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안타. 哲學은 그 時代의 特性을 가짐으로써 그 時代의 人間의 生活行爲에 生命을 주고 血肉이 되는 것이나 數學은 抽象的 原理이여서 그러한 生

命力을 갖지 못하고 잇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事象을 定義하러 할 때는 論理上 으로 어떤 類概念의 內包에 種差를 加하고 다시 그 種概念의 內包 즉 特性을 박이는 것이다. 그러나 定義는 반듯이 論理에 依해서만 規定되는 것은 아니다. 類概念과 種概念의 그 特性을 規定하며 더욱이 定義의 精神을 規定지어 주는 것은 그 時代이며 그 때의 人間들의 生活 態度에서 지어지는 世界觀인 것이다. 各時代의 온갖 哲學 體系는 그 時代의 生活相 및 一般的 世界觀에서 그 性格을 規定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의 歷史的 規定은 必然的으로 그 時代의 生活 形態 또는 그 때의 一般的인 世界觀과의 聯關 미테서만 具體的으로 把握되는 것이다. (끝)